(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30-5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3.4.52.30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성서 히브리어 발음 교육을 위한 제언

— 자음 명칭을 중심으로 —

김지명*

1. 들어가는 말

외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학습자는 배우는 언어의 소리를 모국어의 소리를 기준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외국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 즉 인지 구조가 뇌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 예컨대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후 편의상 '우리말 사용자')은 영어를 처음 접할 때 g를 ㄱ으로 n은 ㄴ으로 수용한다. 예를 든 영어의 자음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말 자음에는 없는 음가를 갖지만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불가피하게 ㄱ과 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소위 알파벳)를 한글 자모로 음역하여 우리말 사용자인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초기 학습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어의 소리를 한글로 옮기는 작업, 즉 음역은 각 언어가 가진 자음과 모음을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소리를 서로 대응시켜 원어가 가진 소리를 한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일이다. 그런데 외국어와 우리말은 유사한 소리라도 엄밀히 평가하면 서로 다른 소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어의 한글 음역은 서로 정확히 상응하는 소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

* Brite Divinity School at Texas Christia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jimyungkim@yonsei.ac.kr.

1) 스키마에 대한 이론은 다음을 보라: D. Roy, "Semiotic Schemas: A Framework for Grounding Language in Action and Perception", *Artificial Intelligence* 167 (2005), 179-188.

기 때문에 음역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종종 초보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ㄱ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영어의 g는 유성 연구개 파열음(voiced velar plosive)인 반면에 ㄱ은 소리가 없는 무성음이며, 특히 종성에서 ㄱ은 파열음이 아닌 폐쇄음이 되기 때문에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으며 소리 내야 한다.[2]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영단어 dog를 단순히 한글 초성(ㄷ), 중성(ㅗ), 종성(ㄱ)의 형태로 조합하면 '독'이 되는데, dog의 g는 유성 파열음이기 때문에 무성 폐쇄음인 ㄱ받침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dog라는 어휘의 영어 발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한글로 영단어 dog를 '독'이 아닌 '도그'로 흔히 표기하는 이유는 (물론 정확한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겠으나) dog의 g를 유성 파열음에 가깝게 소리 내려는 직관적인 반응에 기인한다. 이렇게 외국어의 한글 음역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글 자모의 특성까지도 이해해야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렵더라도 음역의 구체적인 원리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 각 언어가 가진 소리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자모의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단순화한 음역 원칙만을 제시하는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주요 발음 전통만 하더라도 예메나이트(Yemenite), 세파르디(Sephardi), 아슈케나지(Ashkenazi) 등 최소 세 가지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성서 히브리어 교육을 위해서 교수자는 다음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1) 히브리어 발음 전통의 다양성과 더불어 (2)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가진 음성학적 특징을 학습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3)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글 기호로 재현하는 히브리어의 소리는 정확한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시켜야 하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유사하게 히브리어를 음역할 수 있는 한글 표기를 교수자가 선호하는 발음과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히브리어 표준 음역을 제시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발음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고, 또한 이미 다양한 음역과 발음을 보여 주는 교재가 많이 출판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히브리어 발음 교육을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여러 히브리어 발음의 차이와 그 원인을 적어도 교수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학습자를 교육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글을 통해 히브리어 소리를 익힘에 있어 핵심 요소라

2) 이병근, "파열음(破裂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 8. 13.).

할 수 있는 히브리어 발음 전통의 차이, 자음의 교육 실태, 그리고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소리의 차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히브리어 교수자들이 일일이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는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히브리어 교육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독법

히브리어의 다양한 발음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히브리어의 '독법'(vocalization)을 이해해야 한다. 히브리어 문자는 본래 모음 기호가 없이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도 자음만 기록된 채로 전해졌고, 읽을 때는 읽는 이가 모음을 직접 붙여 읽어야 했다. 영어로 치환하여 예를 들자면, "I STD HBR"라는 '문장'은 "I study Hebrew"라고 독자가 직접 모음을 더해 읽어야 했다는 것이다. 언어를 불문하고 아마 이 정도로 단순한 문장은 대체로 큰 혼동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문장이 복잡해지고 내용이 길어지면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오독과 곡해가 생기게 된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정확한 읽기를 전승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모음 기호를 추가로 개발하여 자음 본문에 덧붙이기 시작했다. 이 모음 기호를 개발한 티베리아(Tiberia)의 유대인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masoretes)라고 하며 그들이 개발한 모음 체계를 마소라 모음 체계(masoretic pointing system)라고 부른다.[3] 이 체계는 기원후 600년 즈음에 고안되었다.

티베리아의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이 없던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모음을 추가하여 읽었던 방식을 티베리아식 독법(Tiberian vocalizaiton)이라 부른다. 예컨대 전도서 1:2의 첫 두 단어 **הבל הבלים**은 '헤벨 하발림'이 아니라 '하벨 하발림'이라고 읽도록 규정한 것이다. 세골 명사 **הבל**의 연계형은 원칙적으로 모음 세골이 두 음절 모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헤벨'로 읽어야 하지만 마소라 학자들은 이 경우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하벨'이라는 발음으로 전승했다.[4]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독법은 한동안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전승

3)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강세와 억양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읽기 안내 체계이므로 '모음' 체계라기보다 '발음' 체계이다. 다만 이 체계의 가장 주된 기능이 모음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편의상 '모음 체계'라고 부를 만하다.

4) C. 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101.

되었다.[5] 지금까지 전해져 온 독법은, 사마리아 독법, 바벨론 독법, 팔레스타인 독법이 있다. 사마리아 독법의 경우 기본이 되는 자음 문서 자체가 없으며 다양한 자음 문서에 사마리아식 독법이 사용되며 전승되었다. 사마리아 독법은 구전으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마소라 모음 기호 같은 정교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바벨론 독법도 사마리아 독법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바벨론 독법의 경우는 나름의 모음 기호 체계가 존재하지만 완성도가 높지 않은 탓에 결국 티베리안 독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독법 자체가 혼란스럽게 전해지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독법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티베리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티베리아 독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구분된 독법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독법의 모음 기호가 달린 성경 본문은 그리 많지 않고 미드라쉬, 탈무드, 미쉬나 등의 본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다양한 독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독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소개한 티베리아 독법이다. 이 독법을 반영한 본문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여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라고 부른다. 위에 언급한 다른 독법들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긴 했지만 통일되고 완성된 체계로 발전하지 못하여 결국 마소라 본문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 랜들 가(R. Garr)와 스티븐 파스버그(S. Fassberg)는 '성서 히브리어'(Biblical Hebrew)라 함은 실질적으로 '티베리안 성서 히브리어'(Tiberian Biblical Hebrew)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6] 즉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성서 히브리어'의 발음은 결국 '티베리안 독법'에 따른 발음이 되는 것이다.

3. 히브리어 발음의 주요 전통

동일한 기호에 대한 다양한 독법이 이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어 학습자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단일 독법이라도 지역 전통에 따라 달리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언어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과 이름을 가장 먼저 익히고 각 기호가 가진 소리가 자신의 모국어에서 어떤 소리에 해당하는지를 배운다. 그런데

5) 이하의 문단 전체는 다음 책 9, 10, 12장을 참고하였다: W. R. Garr and S. E. Fassberg, eds., *A Handbook of Biblical Hebrew: Volume 1: Periods, Corpora, and Reading Traditions*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6) Ibid., ix.

안타깝게도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같은 마소라 본문을 읽더라도 전승되어 온 지역의 언어 특징에 따라 발음을 달리했고, 그들이 사용한 문자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도 상이한 경우가 생겼다.

성서 히브리어의 고대 발음은 대략 3세기에 접어들면서 오직 예전 시 낭독과 독서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계승되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했으며, 시간이 더 흘러 유대인들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갔기 때문에 히브리어 발음은 점차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거주 지역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약 1700년이 지난 19세기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일상 언어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미 전승되어 온 발음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의 발음은 통일되지 못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의 발음은 고대의 발음이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 발음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발음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자들도 다양한 전통 중 하나를 학습한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현재 학습자들도 다양한 발음 중 하나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다양화된 히브리어의 발음은 크게 나누어 사마리아식과 비(非)사마리아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비사마리아식 발음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발음인 세파르디, 아슈케나지, 예메나이트 세 가지 전승이다.

3.1. 세파르디

세파르디 유대인들(Sephardi Jews)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세파르디 히브리어(Sephardi Hebrew)라고 부른다. 이 전통이 일반적으로 현대 히브리어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받는 발음이다. 그들은 주로 예전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당연히 예전의 핵심 요소는 히브리어 성경이었다. 즉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발음은 주로 그들의 경전을 읽을 때 사용했던 발음이므로 세파르디 히브리어 발음이 곧 성서 히브리어 발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성서 히브리어 교재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책들은 세파르디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매우 광범위한 위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며, 주로 서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북부 아프리카와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이들은 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으며, 15세기경 추방되어 그 근처인 북부 아프리

카와 유럽 여러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다.[7] 이들의 후손은 현재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세계 도처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3.2. 아슈케나지[8]

아슈케나지 히브리어(Ashkenazi Hebrew)는 로마의 박해로 독일과 프랑스 등을 포함한 북부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이다.[9] 현대 히브리어는 비록 세파르디 히브리어 발음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재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아마도 80% 이상)은 아슈케나지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슈케나지 히브리어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10]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발음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일곱 개의 마소라 모음 부호의 발음을 모두 구분해 왔다는 점이다. 즉 카메츠, 파타흐, 체레, 세골, 히렉, 홀렘, 슈렉, 이 일곱 개의 발음 중 카메츠와 파타흐, 체레와 세골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장, 단의 차이가 있으나 실재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서로 다르게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모음 ㅜ를 표기하는 읽기모(matres lectionis) '바브/와우'(모음일 때 슈렉)와 단모음을 표기하는 킵부츠의 발음도 대개의 경우 그 장, 단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지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베리안 독법은 마소라 모음 기호 7개를 모두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7개 기호를 모두 구분할 수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티베리안 독법의 계승자들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13세기까지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발음을 공유했었고 그 후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서 이미 티베리안 독법에서 슈렉과 킵부츠는 두 기호를 서로 바꾸어 쓰기 때문에 이 두 발음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티베리안 독법의 정통 계승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7) M. S. Diez, "Mapped: Where Sephardic Jews Live After They Were Kicked out of Spain 500 Years Ago", https://qz.com/ (2022. 8. 13.); S. Aroeste, "Latino, Hispanic or Sephardic? A Sephardi Jew Explains Some Commonly Confused Terms", https://www.myjewishlearning.com (2022. 8. 13.).

8) '아슈케나지(Ashkenazi)'는 '독일인'(Germany)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다.

9) "Ashkenazi: People",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2022. 8. 13).

10) Ibid.

3.3. 예메나이트

예메나이트 혹은 예멘 히브리어(Yemenite Hebrew)는 예멘에 살거나 혹은 한때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히브리어이다. 현재 예멘 출신 유대인(Yemenite Jews)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며, 일부 미국에 살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예멘식 히브리어 발음은 흔히 가장 고대의 발음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의 발음으로 예멘 히브리어가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파르디 히브리어가 사실상 현대 히브리어의 기초가 되었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으므로 이 두 발음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고 예멘 히브리어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4. 주요 발음 전통의 비교

성서 히브리어는 대부분의 우리말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언어이다. 만일 교수자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발음 전통을 세세히 가르치려 들면 초기 접근성이 떨어져 학습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의 발음을 학습자에게 모두 주지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수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발음 전승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이 부분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킴으로서 학습자 자신이 배운 발음이 소위 '표준'이라는 인식적 오류를 갖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표준 발음처럼 제시되는 방식은 세파르디 전통이다.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발음도 엄밀히 말해서 모두 같은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통일된 발음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히브리어 문법서의 고전 중 하나인 데이빗슨(A. B. Davidson)의 책을 따르면 세파르디 전통의 자음의 명칭과 발음은 다음과 같다.[12]

---

11) R. Nordland, "Persecution Defines Life for Yemen's Remaining Jews", https://www.nytimes.com (2022. 8. 13.).

12) A. B. Davidson, *An Introductory Hebrew Grammar with Progressive Exercises in Reading Writing and Pointing*, 26th ed. (Edinburgh: T&T Clark, 1966), 8: 원서에는 강세 기호가 추가

4.1. 데이빗슨에 따른 세파르디 자음 발음

기호	명칭	음역기호	기호	명칭	음역기호
א	*ʾā-leph*	ʾ[13]	ל	*lā-medh*	l
ב	*bêth*	bh	מ	*mêm*	m
בּ		b	נ	*nûn*	n
ג	*gî-mel*	gh	ס	*sā-mekh*	s
גּ		g	ע	*ʿa-yin*	ʿ[14]
ד	*dā-leth*	dh	פ	*pē*	ph
דּ		d	פּ		p
ה	*hē*	h	צ	*ṣā-dhê*	ṣ
ו	*wāw*	w	ק	*qôph*	q
ז	*za-yin*	z	ר	*rêš*	r
ח	*ḥêth*	ḥ	שׁ	*šîn*	š
ט	*ṭêth*	ṭ	שׂ	*śîn*	ś
י	*yôdh*	y	ת	*tāw*	th
כ	*kaph*	kh	תּ		t
כּ		k			

데이빗슨은 이 표에 더하여 실제 소리를 어떻게 조음해야 하는지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소위 '베가드케파트' 문자는 모음 뒤에서 마찰음화될 때 기음과 마찰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연강점(dagesh lene)을

되어 있으나 이 표에서는 생략했고, 원서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문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했다. 원서에는 끝 글자의 형태가 다른 경우 따로 표기가 있으나 이 표에서는 생략했다. 소위 '베가드케파트'(**בגדכפת**)의 경우 원서에는 연강점(dagesh lene)이 있는 표기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 표에는 추가했다. 그 외 다른 표기는 모두 원서를 그대로 재현했다. 다음을 참고하라: 2음절 이상의 명칭은 음절 사이에 -(붙임표)가 삽입되어 있다. 어조장모음(tone-long vowel) 위에는 장음 기호(macron; 예: ē), 순장모음(pure-long vowel) 위에는 곡절기호(circumflex, 예: ê)가 표기되었다. 마찰음화(spirantization)된 '베가드케파트' 문자가 포함된 경우 h를 추가로 표기하고 밑줄을 그어 눈에 띄도록 했다(예: *ʾā-leph*의 ph는 연강점이 없는 **פ**의 끝글자이며 *pē*의 p는 연강점이 있는 **פּ**이다).

13) 단어의 시작부에 오는 작은따옴표처럼 생긴 이 발음 기호는 'modifier letter right half ring'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유니코드는 U+02BE이다. 그리스어의 부드러운 숨표[spiritus lenis, (᾽)]와 혼용하여 쓸 수 있다. 그 유니코드는 U+1FBD이다.

14) 단어의 시작부에 오는 작은따옴표처럼 생긴 이 발음 기호는 'modifier letter left half ring'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유니코드는 U+02BF이다. 고대 그리스어의 거센 숨표(spiritus asper, [῾])와 혼용하여 쓸 수 있다. 그 유니코드는 U+02BD이다.

가질 때는 격음과 파열음으로 소리 내야 한다.[15] 예를 들어 בּ는 영어의 v; ג은 북부 독일어 발음으로 내는 Tage의 g; ד는 영어 father의 th; כ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Kharkiv(하르키우)[16]의 kh; פ는 영어의 f; ת는 영어 thin의 th로 소리 내야 한다.

히브리어 자음 중 후음(א ה ח ע)은 한글 ㅎ이나 영어의 h와 비슷한 발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ה를 제외하고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데이빗슨을 따르면 א의 소리는 부드러운 숨소리(smooth breathing)이며 영어 hour의 h, 즉 목구멍 혹은 성문(glottis)을 닫았다 열면서 가볍게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다. 우리말 사용자들은 hour의 h를 묵음으로 이해하여 hour를 '아워'로 발음하곤 하는데, 여기서 '아'의 초성 ㅇ은 목구멍을 닫았다 여는 과정 없이 내는 소리여서 자음 음가가 전혀 없다. 하지만 hour의 h나 히브리어의 א는 목구멍을 닫았다 여는 순간의 소리가 존재하며, 약하긴 하지만 엄연히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갖는다. ע도 조음 방식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ע이 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를 갖는다는 데 있다. 즉 ע은 목구멍을 닫았다가 갑자기 열면서 거세게 후두를 사용해 소리를 내야 한다. 따라서 ע은 거친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거친 숨표 기호(ʿ)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ח는 독일어 발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소리이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ח는 독일어 machen의 ch에 해당하는 소리를 갖는다. 흔히 이 발음은 우리말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이와 유사한 소리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이라는 표현에서 '큰'을 강조하여 길게 발음하면 목구멍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게 되면서 ח 혹은 machen의 ch와 유사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물론 이 경우 첫 자음 ㅋ 소리는 제외해야 한다.). 후음은 아니지만 후음과 연계하여 소개할 발음은 ר이다. 데이빗슨은 ר를 영어의 r로 표기할 뿐 발음에 대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 다만 ר는 후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ר가 후음과 유사한 음운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이유로 후음처럼 '굴리는 목구멍소리'("rolling, throaty sound")로

15) '베가드케파트' 문자가 연강점을 갖지 않을 때 마찰음화된다고 이해하는 것과 두 개의 발음을 가졌다고 규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자음의 경우 '국수'의 첫음절 종성 ㄱ 다음에 오는 ㅅ과 '갑자기'의 첫음절 종성 ㅂ 다음에 오는 ㅈ은 된소리, 즉 ㅆ(쑤)과 ㅉ(짜)으로 변하는데, 이는 음운현상이지 두 개의 소리를 가진 것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베가드케파트' 문자도 각 기호가 두 개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마찰음화되는 음운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해야 한다.

16) Kharkiv의 한글 음역은 '하르키우'이기 때문에 데이빗슨은 כ의 소리를 한글의 ㅎ 혹은 히브리어의 ה와 거의 유사한 소리로 소개하는 듯하다. 그러나 כ의 소리는 오히려 ח와 매우 유사하다. 참고로 원서에서 Kharkiv는 러시아식으로 Kharkov로 표기되었다.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Kharkiv의 공식 발음은 '하르키우'이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지막 v를 영어의 v 혹은 f로 발음한다.

조음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덧붙일 뿐이다. 이 설명에서 주의할 부분은 데이빗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ר가 후음이 아니기 때문에 목구멍소리(throaty sound)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부분이지 ר가 굴리는 소리(rolling sound)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굴리는 소리'로서 미국식 r의 발음이 히브리어의 '굴리는 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히브리어의 '굴리는 소리'는 혀를 입 안쪽으로 한껏 만 상태에서 내는 미국식 영어의 r과 달리 상대적으로 혀를 조금만 만 상태에서 내는 전음(혹은 트릴[trill])에 더 가깝다. 예컨대 히브리어의 관계대명사 אשר는 'asher'(아쉘)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글로 '아쉐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원어의 소리와 유사하다.

우리말 사용자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려운 히브리어 발음은 וי이다. 데이빗슨은 자음으로서의 ו를 영어 water의 w에 견주어 설명한다. 이 설명은 영어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명료하게 다가오지만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왜냐하면 우리말 사용자들은 영어의 w가 가진 음가를 마치 모음 u의 소리 혹은 한글 모음 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사용자들은 water를 '워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hour의 h와 같이 한글로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 w는 초성으로 쓰일 때 약하지만 분명한 자음 음가를 가지고 있다.[17] 영어의 w는 단어의 맨 앞에서 유성음이며 모음 ㅜ처럼 입술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나 ㅜ처럼 입술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들인 상태에서 목구멍으로부터 소리를 내되 순간적으로 입술의 긴장을 완화시켜 살짝 벌려 공기를 빼면서 조음한다. 이 소리가 모음 ㅜ 혹은 '워'처럼 들릴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라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 사용자에게 יי가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데이빗슨은 יי를 영어 year의 y와 같은 것으로 소개하는데, 이 역시 우리말 사용자들은 ㅣ라는 모음으로 이해하곤 한다. 예를 들어 year와 ear를 한글로는 모두 '이어'로 음역하는 이유는 한글에 y의 자음 음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에게 year와 ear는 y의 자음 음가 때문에 명백히 다른 소리로 들린다.[18] 영어의 y는 한글 모음 ㅣ를 발음할 때처럼 입술을 좌우로 얇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연구개 쪽으로 밀어 올리고 소리 내면서 동시에 혀의 긴장을 완화시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연구개와 혀가 근

17) w는 모음 뒤에서는 u와 같은 발음을 갖는다.
18) y는 초성이 아닌 경우 모음이다.

접한 상태에서 조음하기 때문에 모음 ㅣ를 낼 때보다 소리가 나오는 길이 막혀 있어야 하며 따라서 ㅣ보다 답답한 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 외에도 주목할 발음은 더 있다. 치음인 ט와 ת는 모두 영어의 t와 유사한 소리지만 데이빗슨은 전자의 경우 혀를 펴서 입천장(경구개) 쪽을 누르며 나는 소리라고 설명하며, 치음이라기보다 오히려 구개음에 가깝다고 말한다. 아마도 한글 기호 ㄸ에 가까운 소리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기호로 구분하기 위해 그는 ט를 ṭ로 표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ס과 צ의 차이도 설명한다. 즉 צ는 ס과 유사한 소리지만 조음할 때 혀가 경구개 쪽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צ는 ṣ로 표기한다. 이에 더하여 그는 ס과 שׂ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두 자음은 본래 다른 소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서로 혼용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데이빗슨은 שׂ의 음역인 ś가 ס의 음역인 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주의해야 할 발음은 כ와 ק의 발음이다. 데이빗슨은 כ를 k로 ק를 q로 음역하는데, 이 두 문자도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혹은 IPA)에 따르면 문자 k는 무성 연구개 파열음이며 q는 무성 구개수 파열음이다. '구개수'는 연구개보다 조금 뒤쪽, 즉 목젖(uvula)에 가까운 부위를 말하므로 k와 q는 조음 위치상 매우 유사한 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4.2. 세파르디 발음과 다른 주요 발음의 비교

비록 위에 소개한 세파르티 전통의 발음이 구약성경을 읽기 위한 발음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통 안에서도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다양한 발음은 타 전통의 발음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히브리어 자음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는 명칭이나 발음의 절대적 표준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되도록 다양한 발음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학습자를 상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데이빗슨이 제시한 세파르디 발음을 기준으로 아슈케나지와 예메나이트 발음이 다른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자.[19]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자음들은 세 발음 전통에서 대체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1) א: 앞서 부드러운 숨소리라고 설명한 이 기호는 아슈케나지 전통에서

19) 아래 모든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S. Morag, "Pronunciations of Hebrew", *Encyclopedia Judaica*, vol. 16, 2nd ed. (Detroit: Gale, 2007), 547-62.

는 묵음이며, 심지어 세파르디 발음을 구사하는 많은 유대인들 역시 이를 묵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메나이트 전통에 속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숨소리로 발음하지만 일부는 묵음으로 발음한다.

(2) בּ/ב: 세 전통 모두 연강점을 갖는 경우 b로, 갖지 않는 경우 v로 발음하며 일부 예메나이트 유대인들과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구분 없이 모두 b로 발음한다.

(3) גּ/ג: 세파르디 일부와 아슈케나지 전통에서는 연강점 유무에 관계없이 g(무성 연구개 파열음)로 발음하지만 대부분의 예메나이트 유대인들과 일부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연강점이 없을 때 무성 연구개 마찰음(g를 발음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를 진동시킴)으로 발음한다.

(4) דּ/ד: 대부분의 세파르디 유대인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연강점 유무에 관계없이 d(유성 치경 파열음)로 발음한다. 그러나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연강점이 없을 때 영어 father의 th처럼 유성 치간 마찰음으로 발음한다.

(5) ה: 데이빗슨이 h로 설명한 이 자음은 의외로 일부 세파르디와 아슈케나지 전통에서 묵음으로 처리하며 특히 맙픽(mappiq)이 첨가된 경우에도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모두 h로 발음한다.

(6) ו: 데이빗슨이 water의 w로 설명한 이 자음의 경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모두 v로 발음하며 일부 세파르디 전통에서도 v로 발음한다. 예메나이트 전통에서는 모두 w로 발음한다.

(7) ז: 세 전통 모두 대체로 z(유성 치경 치찰음)로 발음한다.

(8) ח: 데이빗슨에 따르면 ח는 무성 인두 마찰음(ḥ), 즉 독일어 machen의 ch에 해당하는 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세파르디 유대인들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무성 구개수 마찰음(χ)으로 발음하기도 한다.[20] 그런데 인두 마찰음이나 구개수 마찰음은 조음 위치에 큰 차이가 없고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말 사용자들에게 이 두 소리는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다. 어떤 유대인들은 ה처럼 ㅎ으로 발음하거나 묵음처리하기도 한다.

(9) ט: 히브리어 자음을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유성음과 무성음에 더하여 소위 '강세음'(emphatic)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음은 ט와 צ이다. 이 두 강세음은 유사한 발음의 대응 자음이 각각 하나씩 있다. ט의 대응 자음은 연강점을 갖는 תּ이며 צ의 대응 자음은 ס이다. 데이빗슨이 소개한 ט의 발음 기호가 ṭ인데 이는 תּ의 발음인 무성 치경 파열음에 대응하는

20) 구개수는 목젖을 말한다.

‘강세음’을 나타낸다. 이 소리는 t의 조음 위치인 치경에서 혀를 조금 더 내민 위치, 즉 치음이며 동시에 혀가 조금 더 펴지기 때문에 혀의 뒤쪽이 들리면서 연구개음화하게 된다. 파열음이라는 점은 두 소리가 가진 공통점이다. ט는 아마도 한글 ㅌ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소리일 것이다. 다만 다수의 세파르디 유대인들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ט를 강세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보통 소리(t)로 발음한다. 반면에 많은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강세음을 사용한다.

(10) י: 앞서 설명한 것처럼 י는 영어 year의 y처럼 발음한다. 일부 유대인들은 영어의 j처럼 유성 파찰 구개전음(voiced prepalatal affricate, ǧ)으로 발음한다.

(11) כ/כּ: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 자음의 발음은 같다. 다만 데이빗슨이 설명한 바, 연강점이 없는, 약하게 발음하는 כ가 우크라이나의 도시 Kharkiv(하르키우)의 kh처럼 발음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Kharkiv에서 첫 자음 kh의 발음은 우리말 ㅋ보다는 ㅎ에 더 가깝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 자음은 영어의 k처럼 조음하려고 하는 상태로 입 모양을 형성시킨 후에 소리 자체는 무성 연구개 마찰음(voiceless velar fricative)처럼 발음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연강점을 갖는 כּ의 경우 영어의 k처럼 무성 연구개 파열음으로 발음한다.[21] 사마리아 전통에서는 연강점이 없는 경우에도 무성 연구개 폐쇄음으로 발음한다.

(12) סּ과 שׂ: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빗슨은 이 두 자음의 발음 기호를 각각 다르게 표기한다(שׂ=ś, סּ=s). 하지만 슐로모 모락(S. Morag)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두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대인 공동체마다 발음 자체는 약소하게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는 모두 ś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s로,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ś와 s사이의 어떤 소리로 발음되기도 한다.[22]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ע: 이론적으로 이 자음은 א과 유사하게 조음하지만 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를 갖는다. 그러나 모락에 따르면 아슈케나지와 세파르디 전통에 속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כ처럼 무성 연구개 마찰음(voiceless velar fricative), 즉 kh 혹은 k̲로 발음한다; 또 어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א과 마찬가지로 묵

21) 모락(S. Morag)은 파열음이 아니라 폐쇄음이라고 설명한다. S. Morag, “Pronunciations of Hebrew”, 555.

22) ś는 폴란드어에서 쉽게 발견되는 발음으로 영어의 sh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약하게 (혹은 s에 가깝게) 발음해야 한다.

음으로 여긴다.

(14) פ/פּ: 일부 유대인들은 강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영문자 p 혹은 ㅍ처럼 발음한다.

(15) צ: 이 자음은 흔히 ṣ로 표현되는데, 이는 무성 연구개 치찰음(voiceless velarized hissing sound)이다. 이 소리는 무성 치음 파찰음(voiceless dental affricate)인 ts와 다른데, 모락에 따르면 많은 경우 후자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말 사용자에게 이러한 차이는 식별이 거의 가능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ㅊ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ק: 흔히 כ와 거의 동일한 발음으로 인식되는 이 자음의 경우, 일부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유성 구개수 파열음(voiced uvular plosive), 즉 ㄲ처럼 발음하기도 한다.

(17) ר: 흔히 전음(혹은 트릴[trill])으로 발음하는 이 자음을 대부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유성 연구개 마찰음(voiced velar fricative)으로 발음한다. 이 소리는 한글 ㄱ 혹은 영문자 g를 조음하는 것보다 조금 더 뒤쪽(연구개)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

(18) שׁ/שׂ: 사마리아 전통에서는 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שׁ으로 발음한다.

(19) ת/תּ: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강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영문자 t로 발음하는 이 자음의 경우도 몇몇 예외가 있다. 일부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영어의 ts로 발음하며, 또 어떤 일부 예메나이트 유대인들은 연강점이 없을 때 무성 치간음(voiceless interdental), 즉 영단어 thin의 th로 발음한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인 유성 치간음(voiced interdental), 즉 영단어 that의 th로 발음한다. 일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강점이 없을 때 영어의 s로 발음한다.

5. 국내 히브리어 교재의 자음 설명

데이빗슨은 그의 책에서 소개한 자음의 명칭과 발음이 세파르디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파르디 발음은 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세파르디 발음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한 많은 사람들 중 ו를 영어의 w가 아닌 독일어의 w, 혹은 영어의 v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히브리어와 한글의 근본적인 소리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더하여 한 전통 안에서의 다양한 발음 전승은 히브리

어의 한글 음역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제 국내 출판된 히브리어 교재들이 이 다양한 히브리어 자음 발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발음 설명은 다음 저자/역자들의 히브리어 교재를 종합한 것이다[23]: 김영진[24], 김재관(J. 와인그린)[25], 김정우(주옹-무라오까)[26], 김정훈(M. D. 푸타토)[27], 김창대[28], 류근상(J. 와인그린)[29], 박미섭[30], 박철현[31], 방석종[32], 배제민[33] 유재원[34], 서한원/이양묵[35], 신충훈(M. Greenberg)[36], 이기락(T. O. 램딘)[37], 이영근[38], 이희성[39], 최명덕/정길호(A. P. Ross)[40]. 이 글에 열일곱 권에 담긴 모든 발음 설명을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니, 가장 중요한 자음의 명칭을 중심으로 논평이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만 덧붙이도록 하겠다.

(1) **א**: 아~알레프, 알렙, 알렢, 알레프, 알-렢, 알-렙, 알렙alef (음가: 성문폐쇄음, 묵음, ㅇ, ʾ)

(2) **ב/בּ**: 베-트/베ㅇ트, 베트, 벳(베트), 베트, 베-트, 벹- (음가: b/v[bh, b]; ㅂ/ㅂㅎ)

(3) **ג/גּ**: 김멜, 기멜, 기-멜 (음가: g/g[gh]; ㄱ/후음r, ㄱㅎ)

(4) **ד/דּ**: 달렡, 달렛, 달렏, 다렛, 달레트, 달-렏 (음가: d/d[dh, th in the], ㄷ/ㄷ[ㄷㅎ])

(5) **ה**: 헤-ㅇ, 헤, 헤- (음가: h; ㅎ)

(6) **ו**: 바브, 봐브, 와우, 와-우, 바브/와우 (음가: v or w; ㅂ, 연한ㅂ, ㅂ순경음, 우, 묵음)

---

23) 아래 저자와 역자들의 순서는 모두 한국인 저자와 역자의 이름순으로 했다. 번역서의 경우에도 히브리어 알파벳의 한글 음역은 역자의 이해와 번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다른 저자들과 함께 나열했다.

24) 김영진,『성서히브리어』(서울: 올람하타낙, 2005).

25) J. 와인그린,『구약성서 히브리어 완성』수정판 2판, 김재관 역 (서울: CLC, 2012).

26) 주옹-무라오까, 김정우,『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27) M. D. 푸타토,『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김정훈 역 (서울: CLC, 2017).

28) 김창대,『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파주; 문예림, 2016).

29) J. 와인그린,『히브리어 문법』,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0).

30) 박미섭,『성서 히브리어 문법』(서울: 기혼, 2012).

31) 박철현,『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의 뼈대』(서울: 솔로몬, 2002).

32) 방석종,『히브리어 문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3) 배제민,『새로운 형태의 히브리어 연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34) 유재원,『성서 히브리어 문법』(서울: 민영사, 1990).

35) 서한원, 이양묵,『알기쉬운 새히브리어 교본』(서울: 성지출판사, 2006).

36) M. Greenberg,『히브리어 길라잡이』, 신충훈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37) 토마스 O. 램딘,『성서 히브리어』, 이기락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38) 이영근,『히브리어 문법해설』(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39) 이희성,『성경 히브리어 문법』(용인: 킹덤북스, 2020).

40) A. P. 로스,『로스성서히브리어』, 최명덕, 정길호 역 (서울: 미스바, 2007).

(7) ז: 자인 (음가: z; ㅈ, 유성음ㅈ)

(8) ח: 헤ㅇ트/헤-트, 헤트, 헷(헤트), 헤-트, 헽- (음가: ḥ; 독일어 Bach의 ch, ㅎ, ㅎㅎ, 무성후음, 거센ㅎ)

(9) ט: 테ㅇ트/테-트, 테트, 텟(테트), 떼트, 테-트, 텥- (음가: ṭ, t, ṭ로 쓰고 t로 발음, 둔한 t; ㄸ, ㅌ, ㅌㅌ, 무성 치음의 파열 연구개음)

(10) י: 요드, 욧(요드), 요-드 (음가: y, y 또는 묵음, 영어의 y, 영어의 j; ㅇ, 이, 모음적 구개추이음)

(11) כ/כ: 카프, 캅(카프), 캎 (음가: k/k̲(kh, ḫ, 그리스어 χ, 거센 ch, 독일어 machen의 ch, k와 구분할 수 없음); ㅋ(헤트와 비슷)/ㄲ(연한소리ㅋ, ㅋㅎ)

(12) ל: 라메드, 라멧(라메드), 라-멛 (음가: l; ㄹ, ㄹㄹ)

(13) מ: 멤, 멤- (음가: m; ㅁ)

(14) נ: 눈, 눈- (음가: n, ㄴ)

(15) ס: 싸멕, 사멕, 사메크, 사-멬, 싸멬 (음가: s, house의 s, 둔한 s, ṣ; ㅅ, ㅆ)

(16) ע: 아인 (음가: ʿ, ʿ로 쓰고 묵음 처리, ʿㅇ, 묵음, 초성ㅇ, 성문이 열리면서 급하게 나는 날카로운 후음, 거친 숨소리처럼 목구멍 뒤에서 나는 강한 소리, 유성 후음, 인후부 깊은 곳에서 강하게 발음,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 거의 꿀꺽하는 소리에 가까움)

(17) פ/פ: 페-, 페 (음가: p[불어의 p]/f[ph, p̲, 영어의 f]; ㅍ/ㅍㅎ[연한소리ㅍ])

(18) צ: 짜~디~, 짜데, 차데, 짜데, 짜디(딕)[41], 싸-데, 차-데 (음가: ṣ, ts, ṣ로 쓰고 ts발음; ㅊ, ㅉ, ㅆ, 강한 치찰음, 무성 연구개 치찰음)

(19) ק: 코프, 콥(코프), 꼬프, 코-프 (음가: q, k, q로 쓰고 k로 발음, 목 뒤에서 나는 k, 기식 없는 k, k̟; ㅋ, ㅋㅋ, ㄲ)

(20) ר: 레ㅇ쉬/레-쉬, 레쉬, 레-쉬 (음가: r, 이태리어 r, 아랍어 r, 영어 r; 프랑스어 r, 독일어 r, ㄹ, 유음ㄹ)

(21) שׁ/שׂ: 신/쉰, 씬/쉰, 신-/쉰-, 시-ㄴ/쉬-ㄴ (음가: ś[s]/s[sh]; ㅅ(ㅆ, ס과 같은 발음)/쉬(ʃ)

(22) ת/ת: 타우/타브, 타브, 타우, 타-우, Taw (음가: t[프랑스어 t]/t̲[th, think의 th, 라틴어 natio의 t, 스페인어 nación의 c]); 강점과 관계없이 모두 t로 발음; ㅌ/ㅌㅎ(ㅌ)

---

41) "짜딕"은 일반적으로 צדי(차디 혹은 차데)로 칭하지만, 이 글자의 다음에 오는 ק와 연음하는 관습이 생겼던 탓에 현대 유대인들이 צדיק으로 발음하다가 생긴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 צדיק와 철자가 같아 더 쉽게 오칭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을 보라: M. Posner, "Tzaddik vs. Tzadi", https://www.chabad.org (2022. 8. 13.). 이디쉬어의 경우 '차덱'으로 발음하기도 하다. 다음을 보라: U. Weinreich, *Modern English-Yiddish Yiddish-English Dictiona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8), 453.

5.1. 자음 이름 음역의 평가

위에 나열한 총 열일곱 권의 히브리어 문법책들 중 여섯 책은 각 자음의 한글 음역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국제 음성 기호(혹은 영문)로만 소개한다. 그중 세 권은 역서이며 다른 세 권은 한글 저서이다. 한글 음역을 제시한 대부분의 책들 중 א과 ת의 경우 영문 음역만 제시하거나 혹은 한글 음역에 더하여 영문 음역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한글 음역에 있어 종성 처리에 따라 생기는 음역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국립국어원이 제정한 한국어 어문 규범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받침으로는 오직 ㄱ, ㄴ, ㄹ, ㅁ, ㅂ, ㅅ만 써야 한다.[42] 그러나 무성음인 우리말 자음과 달리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대부분의 자음이 유성음이어서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여섯 개의 자음으로만 받침을 기재하면 본래의 소리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달렛(ד)의 경우'라는 문구를 우리말처럼 발음하면 '달레ㅅ 경우'로 읽어야 하지만 본래 자음 명칭이 ד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인 ת의 발음을 살려 '달레트의 경우'처럼 발음하는 것이 원어 발음에 가깝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법서 저자들은 외래어 표기법 원칙을 준수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실상 별다른 원칙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재현하도록 책을 구성한다. 즉 ד는 ㅌ받침을 써서 '달렏'으로 음역하거나 음절을 늘려 '달레트'로 음역하여 마지막 소리에 ת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즉 사용할 수 없는 ㅌ받침 대신 ㅅ받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달렛).

둘째, 어떤 저자 혹은 역자들은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물결표(~)나 붙임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פה(פ)의 경우 단순히 '페'로 쓰기도 하지만 순장모음을 표현하기 위해 '페-'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다소 특이한 경우는 '시-ㄴ/쉬-ㄴ'의 경우인데, 이런 음역은 모음이 길다는 표시를 확실히 하지만 한글 표기 방식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어떤 자음들은 예사소리(평음), 거센소리(격음)와 된소리(경음)로 달리 표기되었다. 예컨대 ט의 경우 ㅌ(테트) 혹은 ㄸ(떼트)로, ס의 경우 ㅅ(사멕) 혹은 ㅆ(싸멕)으로, צ의 경우 ㅉ(짜데) 혹은 ㅊ(차데) 혹은 ㅆ(싸데)로, ק의 경우 ㅋ(코프) 혹은 ㄲ(꼬프)로 שׁ/שׂ의 경우 신/쉰 혹은 씬/쉰으로

42) 국립국어원 편, "외래어 표기법",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 (2017. 3. 28.).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유일하게 모든 저자와 역자들이 통일된 음역을 보여준 경우는 ז(자인)과 ע(아인)이 있다.

다섯째, 어떤 음역들은 원음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봐브'의 경우는 영문 음역 'waw'의 'w'의 음가와 'v'를 합성한 듯한 형태(봐)로 보인다. 만일 'waw'를 (일부 세파르디 유대인들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발음하는 대로 v로 발음한다면 'waw'의 w는 독일어식 음역으로 보는 것이 옳고, 영문으로는 'vav'로 즉 '바브'로 옮겨야하다. 보편적인 세파르디 방식의 'waw'는 '와우'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슈케나지 발음을 선택하는 경우에 '와' 발음에 맞춰 '봐'라고 음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ד(דלת)의 경우 '다렛'은 ל의 음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며, '달렏'의 ㄷ받침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으면서 동시에 ת의 음가인 ㅌ을 표기하지도 않고 있어서 바람직한 음역이 될 수 없다.

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어 자음의 소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각 교재의 한글 음역의 첫 자음들은 예사소리(평음), 거센소리(격음), 된소리(경음)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큰 차이는 없으며, 그것도 대체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히브리어 자음의 명칭 음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각 저자 혹은 역자들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음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자음 발음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각 책의 음역 원칙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다). 따라서 후에 저술될 히브리어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5.2. 각 자음의 음가 설명에 대한 평가

위에 소개한 각 자음의 한글 음역을 통해 학습자들은 첫 자음이 해당 자음의 음가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베가드케파트 문자나 후음 등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모든 책들이 각 자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길게 혹은 짧게 설명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모든 설명을 망라할 수 없으므로 간략한 발음만을 소개 했다. 아래는 그 발음 설명의 특징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위에 간략히 나열한 발음들은 앞서 소개한 주요 세 발음 전통이 보이는 다양한 차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소리로 각 자

음을 설명한다. 저자들과 역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히브리어를 습득했고 이를 기준으로 히브리어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로써 방증된다. 아쉬운 것은 어떤 책의 저자/역자는 다른 발음 전통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해당 저자/역자가 복잡한 히브리어 발음 전통에 대해 무지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히브리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약학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발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다른 발음 전통이 존재하고 있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베가드케파트 문자의 경우 다게쉬의 유무에 따른 소리를 영문 알파벳에 밑줄을 긋는 방식(혹은 h를 더하는 방식)으로 부드러운 소리를 표시하거나 한글 음역에서 ㅎ을 첨가하여 구분함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ㅂㅎ, ㄱㅎ, ㄷㅎ, ㅋㅎ, ㅍㅎ, ㅌㅎ처럼 한글 표기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나 영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같은 맥락에서 ㅎㅎ, ㄹㄹ, ㅌㅌ 등도 부적절하다). 이 여섯 문자의 발음은 각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달리 발음되는데, 한글 저/역서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발견된다.

셋째, 문제가 되는 발음 설명도 있다. 예컨대 וֹ나 וּ의 경우 읽기모로 쓰이는 경우를 '묵음'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초보자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마소라 본문의 경우 읽기모 앞에 모두 마소라 모음 부호가 붙어 있어 읽기모 자음들을 묵음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본래 마소라 모음 부호가 붙기 전에 이 자음들은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 것이므로 묵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넷째, 여기에 소개한 책들의 히브리어 발음 설명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히브리어 발음을 설명한다. 히브리어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외국어의 특정 발음들은 구체적인 어휘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발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어의 알파벳, 특히 영어의 알파벳으로만 설명하는 히브리어의 음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ר의 경우 단순히 r이라고 소개하거나 '영어의 r'이라고 설명하게 되면 ר의 일반적인 발음에서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어떤 언어든지 각 문자는 위치에 따라 음운현상 때문에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어 발음의 음가를 설명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6. 나가는 말

평생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설교를 하며 살겠다고 작정한 대다수의 신학생들에게 성경 원전을 읽고 해석하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원어 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히브리어처럼 생소한 언어는 자음의 명칭과 발음을 익히는 것부터 이미 넘기 힘든 큰 장벽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학생들이 히브리어 학습을 포기하고 평생 히브리어 원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원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원어를 다루는 주석을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여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논문이 히브리어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학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음의 명칭과 발음 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히브리어 교육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국 교회의 설교 사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주제어>(Keywords)

티베리아식 독법, 세파르디, 아슈케나지, 예메나이트, 성서 히브리어 자음 교육, 히브리어 한글 음역.

Tiberian vocalization, Sephardi, Ashkenazi, Yemenite, biblical Hebrew consonants, transliteration of biblical Hebrew.

(투고 일자: 2023년 1월 21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3월 3일)

<참고문헌>(References)

국립국어원 편, “외래어 표기법”,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 (2022. 12.27.).

김영진,『성서히브리어』, 서울: 올람하타낙, 2005.

김창대,『25일 완성 히브리어 정복』, 파주; 문예림, 2016.

푸타토, M. D.,『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김정훈 역, 서울: CLC, 2017.

박미섭,『성서 히브리어 문법』, 서울: 기혼, 2012.

박철현,『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의 뼈대』, 서울: 솔로몬, 2002.

방석종,『히브리어 문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배제민,『새로운 형태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서한원, 이양묵,『알기쉬운 새히브리어 교본』, 서울: 성지출판사, 2006.

와인그린, J.,『구약성서 히브리어 완성』, 수정판 2판, 김재관 역, 서울: CLC, 2012.

와인그린, J.,『히브리어 문법』,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0.

유재원,『성서 히브리어 문법』, 서울: 민영사, 1990.

이병근, “파열음(破裂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2022. 12.27.).

이영근,『히브리어 문법해설』,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이희성,『성경 히브리어 문법』, 용인: 킹덤북스, 2020.

주옹-무라오까, 김정우,『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토마스 O. 램딘,『성서 히브리어』, 이기락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A. P. 로스,『로스성서히브리어』, 최명덕, 정길호 역 (서울: 미스바, 2007).

Greenberg, M.,『히브리어 길라잡이』, 신충훈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Aroeste, S., “Latino, Hispanic or Sephardic? A Sephardi Jew Explains Some Comm only Confused Terms”, https://www.myjewishlearning.com (2022. 12. 2 7.).

Davidson, A. B., *An Introductory Hebrew Grammar with Progressive Exercises in Reading Writing and Pointing*, 26th ed., Edinburgh: T&T Clark, 1966.

Diez, M. S., “Mapped: Where Sephardic Jews Live After They Were Kicked out of Spain 500 Years Ago”, https://qz.com (2022. 12. 27.).

Garr, W. R. and Fassberg, S. E., eds., *A Handbook of Biblical Hebrew: volume 1: Periods, Corpora, and Reading Traditions*,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Morag, S., “Pronunciations of Hebrew”, *Encyclopedia Judaica*, vol. 16, 2nd ed., Detroit: Gale, 2007, 547-562.

Nordland, R., “Persecution Defines Life for Yemen’s Remaining Jews”, https://ww w.nytimes.com (2022, 12. 27.).

Posner, M., “Tzaddik vs. Tzadi”, https://www.chabad.org (2022. 12. 27.).

Roy, D., “Semiotic Schemas: A Framework for Grounding Language in Action and Perception”, *Artificial Intelligence* 167 (2005), 179-188.

Seow, C. 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Ashkenazi: People”,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2022. 12. 27.).

Weinreich, U., *Modern English-Yiddish Yiddish-English Dictionary*, New York: Mc Graw-Hill Book Co, 1968.

<Abstract>

On Teaching Biblical Hebrew:
The Consonants

Jimyu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of Biblical Hebrew often complain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learn the language. Of course, the first and foundational problem lies in mastering the Hebrew alphabet (or aleph-bet), particularly the pronunciation of each letter. The problem of the Masoretic reading system's notorious difficulty is only next. Overcoming the barrier of properly pronouncing consonants is no doubt the primary matter.

Beginners of the language have to confront unexpected obstacles when learning Biblical Hebrew consonants. Unlike most other languages, Biblical Hebrew's original sounds are lost, and its modern pronunciations are diversified because of the complex history of the Jewish diaspora. Moreover, there is no unified method to transliterate Biblical Hebrew into the Korean writing system, which is essential for beginners to understand the pronunciation of Biblical Hebrew. Such circumstances eventually led Hebrew Bible scholars in Korea to produce introductory grammar books that render the sound of each letter differently in many cases. This eventually made learning the consonants of Biblical Hebrew, which is supposed to be the simplest and clearest subject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quite complex and unclear. As many students cannot take the first step, they cannot go any further but give up on learning Biblical Hebrew.

Instructor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Biblical Hebrew consonant teaching is pivotal. In this paper, I endeavored to provide instructors with key features to consider in teaching Biblical Hebrew consonants. For example, I introduce a comparison of the three main traditions of Hebrew pronunciation, that is, Sephardic, Ashkenazi, and Yemenite. Then I offer an analysis of seventeen different introductory grammar books that are used in Biblical Hebrew grammar classes in Korea, focusing on consonants in general; their ways of dealing with the name and pronunciation of each letter in

particular. Finally, I add my evalu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Biblical Hebrew consonant education based on the textbooks I analyzed, hoping to foster better Biblical Hebrew education.